

보도시점

2025. 9. 1.(월) 11:00
9. 2.(화) 오전

배포

2025. 8. 29.(금) 09:00

새정부 농정 대전환, 농업 예산으로 뒷받침!

- 농식품부 예산안 '25년보다 6.9%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사상 첫 20조원 초과
- 새정부 핵심과제 이행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예산 중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3) 17조 3,574억원 → ('24) 18조 3,392억원 → ('25) 18조 7,416억원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하였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식량안보 및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①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 조사료·옥수수·깨 +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공급부족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공급 등

동계작물	(품목) 밀, 식량작물, 조사료 / (면적) 115천ha
하계작물	(품목) <u>신규</u> 수급조절용벼·알팔파·수수·울무·메밀, 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 / (면적) 90천ha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1,532억원→3,150)한다.

②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신규 지원(186억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확대(600억원→1,000)한다. 아울러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APC를 확충(누계 60개소→115, 223억원→387)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 출하체계를 구축한다.

③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신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가구→16.1, 381억원→740)한다.

직장인들의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근로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을 도입(79억원)한다. 또한, 1~2학년 늘봄학교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도 재개(60만명, 169억원)한다.

②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

①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공익직불 중 기본형 직불은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실제 집행 가능 수준을 반영하는 등 내실화하면서, 선택형 직불*을 대폭 확대(3,201억원→5,164)한다.

* 친환경농업축산직불(360억원→448), 저탄소농업프로그램(233→352), 전략작물직불(2,440→4,196) 등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15품목→20, 2,078억원→2,752), 농작물재해보험(76품목→78, 4,842억원→5,017), 재해대책비(1,600억원→2,500)를 대폭 확대한다.

②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영농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도입(6개소, 26억원)한다. 이를 통해 농지 임대 등을 통한 집적화·경영규모화를 추진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2,500ha→4,200, 9,625억원→1조 6,170억원)한다. 청년농이 창업 초기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50ha→200, 193억원→770)도 확대한다.

③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①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조성(705억원)한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스마트농업·축산, 전후방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노지·중소농까지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5개소) 스마트 솔루션 보급(1,400농가, 103억원)과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도 신규 지원(21억원)한다.

농식품 R&D예산은 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2,267억원→2,612, 15.2%↑)한다. 이와 별도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응용한 농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신규 지원(30개 업체, 675억원)한다. 스마트농업 혁신 등을 위한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② 문화, 뷰티, 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해외거점공관을 지정하고, 해외 권역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60억원),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10억원) 등을 신규 지원한다. 수출업체 운영·시설자금(4,582억원→5,100), 수출바우처(360억원→720) 지원도 확대한다.

④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①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을 도입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소멸 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을 공모·선정하여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②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를 확대(122개소→137, 1,045억원→1,519)하고, 쾌적한 농어촌지역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농촌대청소 사업을 신규 추진(68억원)한다. 또한, 농촌 빈집 철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105억원)함에 따라 빈집 철거와 재생을 일원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인원(5만명→8)을 대폭 늘리고(65억원→9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도 상향(103만원/월→106)한다.

5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과 연계한 인식 개선과 미래세대 교육을 지원(26억원)하고,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을 지속(12억원)하여 보호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인다.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군견·경찰견 등 사회를 위해 봉사한 은퇴동물 입양을 돕고(신규, 1억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하는 등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도 지속(79억원→81)한다.

② 펫푸드·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고부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원-웰페어밸리’ 조성(‘27년 완공)을 지원(71억원)하고, 국내를 넘어 태국·중동 등 유망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해외인증,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 시장 개척을 지원(15억원)한다.

농식품부는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대한 확보·보완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1.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2.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별첨)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재형 (044-201-131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진필식 (044-201-1321) 박찬우 (044-201-1324)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예산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 대전환



'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20조 350억 원! 사상 첫 2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6.9% ↑)

01 식량안보 강화 및 유통구조 혁신

- 전락작물직불 4,196억 원
· 수급조절용 벼(2만ha) 신규품목 도입 등 지원 확대(+1,756억 원)
- 비축지원 8,984억 원
· 콩 수매비축 물량 2배(3만톤→6) 확대
-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304억 원
· 판·구매자 선택형 바우처 신규 도입(186억 원)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1,460억 원
·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정산자금 지원 확대(+400억 원)
-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465억 원
· 스마트 APC 신규 40개 구축

02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69억 원
·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 대상 과일간식 지원 재개
-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신규 79억 원
· 산단근로자 등 직장인 대상 아침 또는 점심밥 신규 지원
- 농식품 바우처 740억 원
· 지원 대상(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추가)
· 지원기간(10개월→12)
- 천원의 아침밥 111억 원
· 대학생 식수인원 450만 식에서 540만 식으로 확대
- 농축산물할인지원 1,080억 원

03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

- 친환경농업직불 407억 원
· 친환경 논, 과수밭 면적(약 1만ha) 확대
- 수입안정보험 2,752억 원
· 품목(15품목→20) 및 가입률 상향(+674억 원)
- 재해복구지원 2,500억 원
· 재해대책비 확대(+900억 원)
- 농업 인력 지원 399억 원
· 공공형 계절근로 20개소 + 근로자 기숙사 5개소 추가
- 맞춤형 농지 지원 1조 8,077억 원
· 비축농지(2,500ha→4,200), 선임대·후매도(50ha→200) 확대

04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 국가 농업 AI 플랫폼 신규 705억 원
· 농업분야로 AI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기반 조성 추진
-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 확산 신규 103억 원
· 주요 작물 주산지(5개소)에 맞춤형 기술 확산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신규 675억 원
· 30개 AI 제품 대상 최대 30억 원 지원
- 농업 분야 R&D 투자 2,612억 원
· 시가농작업협업, 그린바이오산업화기술R&D대폭확대(+345억 원, 15.2% ↑)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8억 원
· 농식품 수출바우처 2배(360개소→720) 수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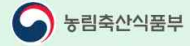
05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1,703억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 거주 주민 월 15만 원 지급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재생 1,637억 원
· 농촌공간정비 15개소 추가
- 농촌빈집 철거 지원 105억 원
· 농촌 빈집 철거 약 1,300호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96억 원
· 대상 인원 5만 명→8만 명 확대
- 농촌지역 복지 지원 1,712억 원
· 왕진버스 15만명에서 18만명까지 확대
·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월 103만 원→106만 원

06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복지 강화 120억 원
· 동물복지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은퇴 국가 봉사동물 입양 신규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1.2만 마리→12.3만 마리
- 동물의료·안전관리 강화 35억 원
· 동물보건사 행동지도사 인력 양성
· 기질평가시설 1개소 추가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86억 원
· One-Welfare Valley 조성(11억 원→71억 원)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안



수혜대상별 맞춤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인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6개 군(237천 명)에 매월 15만 원씩 지원

전략작물직불

품목 확대 (+5개, 수급조절용벼·수수·올무·알팔파·메밀)
+ 단가 인상 (조사료 500만 원/ha → 550, 옥수수 100만 원/ha → 150)

농업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 20개 품목(5품목 추가)
농작물재해보험 76개 품목 → 78품목(시설헯쌀·오이 추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혜대상 5만 명 → 8만 명

농촌 왕진 버스

15만 명 → 18만 명

영양 취약계층

신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아침밥(산단근로자 약 4천 명, 월 평균 4만 원), 점심밥(중소기업 근로자 50천 명, 월 최대 4만 원)

재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초등 1~2학년(60만 명) 대상
컵과일·과채 지원

농식품바우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신부·영유아아동(전체 87천 가구) → 청년 추가(전체 161천 가구)

천원의아침밥

대학생 대상 450만식 → 540만식

농산업 기업

신규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30개 제품(제품당 최대 30억 원)

신규 국가농업 AX 플랫폼
스마트 농업 분야 투자를 위한 705억 원 지원

농업 분야 R&D

2,267억 원 → 2,612억 원
(*25년비 15.2%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550억 원 → 700억 원

농식품 수출기업

신규 글로벌 차세대 수출품목 발굴 지원
총 100개 농식품 기업

농식품 수출 바우처

360개소 → 720개소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4,582억 원 → 5,100억 원

K-콘텐츠 등 활용 비대면 마케팅 지원

99억 원 → 119억 원

농산물 유통업체

신규 온라인 도매시장 판구매자 바우처 지원
186억 원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정산 자금 지원

600억 원 → 1,000억 원

스마트 APC 구축

누적 60개소 → 100개소

반려인·반려동물

신규 은퇴 봉사동물 입양양육비 지원(최대 100만 원/마리)
1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20만 원/마리)

11.2만 마리 → 12.3만 마리

유기·우식 동물 구조보호비 지원(7만 원/마리)

5만 마리(전년동)